

국내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질적 메타요약

표 소 휘¹⁾ 이 슬 아²⁾ 장 애 경³⁾ 이 준 우⁴⁾ 이 은 비⁵⁾ 양 은 주^{*}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메타요약 방법론을 활용하여 국내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질적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이질적인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국내 질적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하여 이러한 요인들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하는 것은 그들의 내적 경험을 이해하고, 심리적 적응을 돕는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메타요약을 통해 국내 질적 연구들이 제시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수용과 통합, 더 나아가 긍정적 정체성 형성에 관여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요약하고자 하였다. 먼저 학술DB 검색을 통하여 국내에서 2021년까지 발표된 총 9편의 관련 연구물을 확보하였다. 9편의 연구물의 질은 Critical Appraisal Screening Programme를 통해 평가되었다. 분석 결과, 총 179개의 진술문이 추출되었고 관련 진술문들을 축약시킨 결과 34개의 축약진술문이 산출되었다. 34개의 축약 진술문은 성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크게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성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논의에서는 영역별 주요 요인을 설명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의 함의와 제한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성소수자, LGB, 성정체성, 정체성 형성, 질적 메타요약

1)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박통합과정

2)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3)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박사수료

4)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상담심리학과 박사과정

5)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석사

* 교신저자 : 양은주,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145, E-mail: yange@korea.ac.kr

성소수자 집단은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혹은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에 근거하여 정의된다. 성적 지향이란 다른 사람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애정적, 성적 끌림으로, 이는 완전한 동성애 지향부터 완전한 이성애 지향 사이에서 양성애 지향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반면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은 스스로 인식하는 자신의 성별로 이는 자신의 생물학적 성(sex)과 일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성소수자 집단은 여성 동성애자(Lesbian), 남성 동성애자(Gay), 양성애자(Bisexual), 트랜스젠더(Transgender)를 포함하며, 이 앞글자를 따서 LGBT라고 표현되는데(김나나, 2017), 이 중 성적 지향에 근거하여 성소수자로 분류되는 집단은 여성 동성애자, 남성 동성애자, 양성애자이며,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성소수자는 트랜스젠더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트랜스젠더의 경우 다른 성소수자 집단과는 구분되는 특성이 있기에, 다른 성소수자 집단의 정체성 발달과정과 구별이 필요하다는 제언에 따라(Beemyn & Rankin, 2011; Bockting, Knudson, & Goldberg, 2006; Diamond, 2002) 본 연구에서는 성적 지향에 근거한 성소수자 집단인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집단에 초점을 두었다.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미국, 뉴질랜드 등 30여개의 국가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성소수자를 사회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는 답보하는 모습이다. 2007년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시도가 2022년까지도 빈번히 무산되고 있는 주요 원인이 “성적 지향”

항목에 대한 일부 단체의 강력한 반발이었다는 점도 이를 보여준다(김송옥, 2020). 제도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에서도 국가 간 차이가 발견되는데, 한국인이 가진 성소수자에 대한 외현적 편견이 비슷한 시기 미국과 캐나다에서 측정된 외현적 편견보다 더 높게 나타난 바 있다(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미국에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성인 인구의 약 3.5%가 LGB, 그리고 0.3%가 트랜스젠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도 그 수가 약 100만에서 500만 명까지 추정되고 있지만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 및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Gates, 2011). 특히,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을 직접적인 변인으로 다룬 연구는 그 필요성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다. 성소수자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등 일반인들보다 유의미하고 높은 심각한 정신질환 유병률을 보였다(손인서, 김승섭, 2015). 최근 1년간 자살사고 유병률은 일반 인구에 비해 레즈비언 여성은 6.25배, 그리고 바이섹슈얼 남성의 경우 10.93배까지 높은 수준이었다. 자살사고뿐만 아니라 실제 자살 시도에서도 일반 인구와 비교하여 레즈비언 여성은 7.11배, 그리고 바이섹슈얼 남성의 경우 37.65배까지 치솟는 모습을 보였다(손인서, 김승섭, 2015). 또한 체계적 고찰연구에 따르면 성소수자 집단은 이성애자 집단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 장애, 알코올 사용 장애의 최근 1년 유병률이 최소 1.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King, Semlyen, Tai, Killaspy, Osborn, Popelyuk, & Nazareth, 2008).

성소수자의 정신질환 유병률이 높은 이유는 다수 집단에 비해 성소수자 집단이 사회적

소수 집단으로서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이다(Meyer & Frost, 2013). 예를 들면 1980년대와 90년대 미국에서 성소수자들에게 HIV 감염은 독특한 스트레스 원인으로, HIV 감염의 가능성을 걱정하고 파트너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성소수자들에게 높은 수준의 심리적 고통을 야기했다(Folkman, Chesney, Collette, Boccellari, & Cooke., 1996, Martin, 1988; Herek & Garnets, 2007). 이에 더해 사회에 만연한 이성애주의(heterosexism)와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에 노출되는 것은 성소수자 집단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주요 우울 장애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Herek, Chopp, & Strohl, 2007; Mills, Paul, Stall, Pollack, Canchola, & Chang, 2004). 또한, 이성애 인구에게는 스트레스를 경감시켜주는 요인인 종교 활동이나 영적인 자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또한 성소수자 집단의 스트레스 증감 요인이기도 하다(Herek, Chopp, & Strohl, 2007).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수용, 동일시를 포함하는 개념인 성적체성은 성소수자를 정신건강 문제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자원 중 하나이다(Meyer, 2003; Worthington, Savoy, Dillon, Vernaglia, 2002). Meyer(2003)은 성소수자 개인이 소수자가 겪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자원을 활용하여 대처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개인적인 자원이란 회복 탄력성, 강인성과 대처 양식 등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자원을 의미하며 집단적 자원은 성적 지향에 기반하여 집단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킨, 모든 성소수자 개인의 접근가능한 자원을 의미한다. 집단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킨 개인은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경험하였을 때 자신의 성적 지향이 틀린 것이 아니라 성적 지향으로 차별하는 것이 옳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

을 믿으며(Branscombe & Ellemers 1998),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를 통하여 스트레스에 적응적으로 대처하고 심리적 고통을 적게 보고하였다(Lewis, Derlega, Berndt, Morris, & Rose, 2002; Luhtanen, 2002; Mills et al., 2004; Morris, Waldo, & Rothblum, 2001). 반면 성소수자로서 집단적 정체성을 발달시키지 못하고 주류 사회에 동화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개인적인 정체성으로만 국한하여 자신의 성적 지향을 이해하는 개인의 경우 스트레스 대처에 집단적 자원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성소수자를 위한 정신 건강 실천을 위해서는 개인이 긍정적인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돕고, 성적 지향을 스스로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Browning, Reynolds, & Dworkin, 1991).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질적 연구방법론은 효과적인 접근이다. 성적체성 발달은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아 이루어지는데, 질적 연구는 이러한 발달 과정의 고유한 특성을 심층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이현진, 김명찬, 2021). 다만 질적 연구의 경우 연구범위와 분석 방법의 이질성일 뿐 아니라 연구결과물 역시 방대하여 이들 연구들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활용하여 성소수자의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들의 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종합하고 분석함으로써,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보편적인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의 발달 이론

성정체성(sexual identity)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인식, 수용, 동일시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Ellis & Mitchell, 2000; Worthington et al., 2002). 즉 성적 지향은 선택의 문제를 넘어서는 성향(predisposition)에 가깝다면, 성정체성은 성적 지향에 대한 채택(adopt)으로 볼 수 있다(Broido, 2000). 포괄적인 의미에서 정체성(Identity)은 개인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해석하는 것 전반을 일컬으며, 현재의 자신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과거와 미래의 자신에 대한 해석의 연속선 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Weinreich, 1986). Erikson은 자아 정체성(ego identity)을 ‘과거 유년 시절부터 미래로의 연속선 상에서, 자신이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과 타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 사이에서, 자기 자신을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능력’(Erikson, 1968)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정체성은 시간적 차원에서 개인이 스스로를 정의하는 고유하고 일관된 특성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자신이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발달 이론들이 Erikson의 전반적인 정체성 발달 이론을 직접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성정체성 발달 이론에서도 정체성 형성과 통합의 일반적인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Cass, 1979; McCarn & Fassinger, 1996; Troiden, 1988). Cass(1979)의 6단계 동성애 정체성 발달 모델은 이후 많은 동성애 성정체성 관련 연구에서 활용되었으며 이론적, 경험적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받고 있는 대표적인 성정체성 발달 모델이다(Eliason, 1996). Cass(1979)의 6단계 동성애 정체성 발달 모델에

서, 1단계는 정체성 혼란(Identity Confusion)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개인들은 동성애로 명명된 감정을 경험하고, 그것이 이성애자로서의 정체성에 균열을 내어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그들은 동성애의 가능성을 거부하며 혼란을 해결하기도 하지만, 동성애 지향에 대해 더 탐색해보기로 결정하고 다음 단계로 옮겨갈 수 있다. 2단계는 정체성 비교(Identity Comparison) 단계로, 개인들은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나 일반적인 동성애 정체성과 비교하여 평가한다. 만약 동성애 지향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지각한다면 탐색을 중단할 수 있다. 3단계는 정체성 관용(Identity Tolerance) 단계이다. 이 단계의 사람들은 자신을 동성애 지향으로 명명하고 같은 지향의 사람들과 접촉하고자 한다. 4단계는 정체성 수용(Identity Acceptance)의 단계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성소수자들은 다른 동성애자들과 동성애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으로 교류한 경험이 있는 경우, 자신의 성정체성을 빠르게 수용하는 상태로 넘어갈 수 있게 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친구와 가족에게 선택적으로 성정체성을 개방하기 시작한다. 5단계는 정체성 자긍심(Identity Pride) 단계이다. 이 단계에 속하는 성소수자들은 동성애 지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커밍아웃 할 수 있다. 또한, 세상을 동성애와 이성애로 양분하여 바라보기도 하며, 지배적인 이성애 문화를 거부하고 분노를 표현할 수 있다. 6단계는 정체성 통합(Identity Synthesis) 단계이다. 이 단계에 속한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온전한 수용이 이뤄지며, 이성애자와 동성애자를 분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게 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으로 나뉘었던 정체성이 통합되고, 전반적으로 타인에 대해 더

공감적이고 관용의 태도를 가지게 된다.

이후에 등장한 모델들도 강조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비슷한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McCarn & Fassinger, 1996; Troiden, 1988). 정체성 형성 단계가 진행될수록 개인은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다양한 탐색을 하며 더 많은 지식과 다양한 관점을 체득하고, 자신의 성적 지향을 보다 수용하고 편안하게 느끼게 된다. 또한 성적체성을 통합하게 될수록 자신의 정체성에 전념하게 되어 성소수자 관련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고,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들을 다루며, 다른 사람에게 동성애 지향을 개방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Morris, 1997; Rosario, Hunter, Maguen, Gwadz & Smith, 2001; Rosario, Schrimshaw, Hunter & Braun, 2006).

한편 Riggle과 Rostosky(2012)은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동성애 성적체성을 형성하는 것의 긍정적인 의미를 조명하였다. 동성애 성적체성은 사회적 맥락 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을 하는 다른 이들의 집단 정체성의 영향을 받는다(Ashmore, Deaux, & McLaughlin-Volpe, 2004). 즉 사회적 맥락 내에서 형성되는 정체성은 특정 정체성을 다른 정체성보다 열등한 것으로 낙인찍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Adams & Marshall, 1996; Phinney & Ong, 2007; Tajfel, 1981).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폄하하는 이성애 중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속에서 성적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은 개인적인 성장과, 다양한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Kwon, 2013; Riggle & Rostosky, 2012). Riggle 등은 성소수자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삶의 주제 8가지를 질적 연구를 통해 확인하였고(Riggle & Rostosky, 2012), 이를 기반

으로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에 대한 다차원적 척도를 개발하였다(Riggle, Mohr, Rostosky, Fingerhut & Balsam, 2014). 이 척도는 ‘자각(Self-awareness)’, ‘진실성(Authenticity)’, ‘소속감(Community)’, ‘친밀감(Intimacy)’, ‘사회 정의(Social Justice)’의 5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성소수자들이 동성애 성적체성을 형성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알아차리고, 스스로에게 더 솔직하며,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에 더 큰 소속감과 친밀감을 느끼며, 사회 정의에 민감해지는 것을 긍정적 정체성 형성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는 Cass(1979)의 모델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예를 들어 4단계의 정체성 수용, 5단계의 정체성 자긍심, 6단계의 정체성 통합으로 갈수록 자신의 성적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ass(1979)를 비롯한 기존 모델들은 성적 지향의 수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Riggle 등은 개인의 웰빙에 보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정과 경험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Riggle et al., 2014).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반적인 정체성 발달과 마찬가지로 성적체성은 개인과 사회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다. 먼저, 성적체성 발달과 관련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성애/양성애에 대한 개인적 태도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게이,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청소년들에 대한 Rosario, Schrimshaw, Hunter(2008)의 종단 연구를 살펴보면, 동성애/양성애에 얼마나 편안함을 느끼는지, 또한 자신의 동성애/양성애 성적 지향에 대해 얼마나 강하게 인지하는지가 개인

의 성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격적 특성 역시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Cass의 성정체성 발달 모델에서는 동성애 지향이라는 새로운 가치와 행동 양식을 탐색하고 같은 지향의 사람들과 자주 접촉하는 과정을 통해 정체성이 발달해 나간다고 간주하는데, Zoeterman과 Wright(2014)는 이러한 과정에서 개방성과 같은 성격적 특성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비록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정체성 발달에 심리적 요인들이 관여한다는 지지 증거를 제시하나, 다소 제한된 범위의 심리적 요인들만이 다루어져 왔다.

이와 달리 성소수자의 성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은 보다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먼저 성소수자들의 가족은 이들의 발달과 적응, 심리사회적 안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부모와 가족의 낮은 지지는 더 심한 우울 증상(Rosario, Schrimshaw, & Hunter, 2005; Ueno, 2005), 높은 자살 가능성(D'Augelli, Grossman, Salter et al., 2005), 삶에 대한 낮은 만족감(Sheets & Mohr, 2009), 낮은 자존감(Rosario et al., 2008); Sheets & Mohr, 2009)과 관련되어 있었다. 아울러 가족의 낮은 지지는 제한된 자기개방, 내재화된 호모포비아와 같은 낮은 수준의 성정체성 발달과도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ario et al., 2008). 국내 연구에서도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한 가족들의 거부나 회피적 태도는 분노, 슬픔, 소외감 등의 부정적 감정과 높은 연관성을 보이지만, 가족들의 수용과 지지는 성소수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진이, 2017).

친구 관계 또한 성소수자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중 하나이다. 성소수자 청소년

들은 친구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되었을 때 친구를 잃게 될까 봐 걱정한다고 보고하였으며(Diamond & Lucas, 2004), 친구가 자신을 떠났던 경험이나, 계속해서 친구를 잃게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은 심리적 고통과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D'Augelli, 2002; Diamond & Lucas, 2004). 그럼에도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친구에게 처음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Beals & Peplau, 2006; D'Augelli et al., 1998), 많은 경우 공개 이후에도 친구와의 관계의 질은 달라지지 않았고 친구가 부모보다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Beals & Peplau, 2006). 또한 친구를 부모보다 더 큰 사회적 지지자원으로 보고한 성소수자들도 있었다(Mufioz-Plaza et al., 2002). 국내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가장 먼저 커밍아웃 하는 대상은 친구인 경우가 많았는데, 친구로부터 지지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성소수자들은 자이존중감이 높아지고 보다 주체적으로 행동하게 되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철, 하경희, 2012; 성정숙, 이현주, 2010).

친구 관계 중에서도 다른 성소수자들과의 관계나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은 중요한 지지자원으로 나타났다(Ueno, 2005). 모든 사회적 집단, 특히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은 자신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발달시켜 나간다(Tajfel, 1981).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은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성소수자들과의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키고,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공감과 지지, 타당화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강병철, 하경희, 2012; 손소연, 이지하, 2016). 친구의 지지와 수용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고

통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Sheets & Mohr, 2009; Ueno, 2005), 자기 수용을 촉진하고 성적체성 발달을 도우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sario et al., 2008; Sheets & Mohr, 2009).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인 학교에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이성애자 청소년들에 비해 놀림이나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Birkett, Espleage, & Koenig, 2009; Bontempo & D'Augelli, 2002), 이는 학교에 대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Pearson, Muller, & Wilkinson, 2007), 낮은 학업 수행(Pearson, Muller, & Wilkinson, 2007; Russell, Sief, & Truong, 2001), 우울, 자살, 약물 사용 등으로 이어지곤 하였다(Birkett et al., 2009; Bontempo & D'Augelli, 2002). LGB 청소년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한 강병철과 하경희(2012)의 연구에서도 모든 참여자들에게 학교에서의 경험은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또래들에게 성소수자로 인식되게 되면 따돌림과 험담을 듣곤 하였으며,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동성애를 정신병으로 가르치거나 나쁜 것이라고 발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학교 내에 성소수자에게 지지적인 프로그램이 있는 경우, 성소수자들에 대한 괴롭힘을 줄이고, 이는 성소수자들의 더 나은 심리사회적 적응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esir-Teran & Hughes, 2009; Goodenow, Szalacha, & Westheimer, 2006).

종합하면, 성소수자의 성적체성은 중요한 심리적 자원으로, 이들이 가진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성적체성 발달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질적인 방법론을 통해 개인과 사회적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들의 성

적체성 발달에 관여하는 과정을 심도 있게 관찰하여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질적 연구의 주제 범위가 서로 상이하고, 분석 방법 역시 이질적인 바,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관통하는 의미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성소수자에 대한 연구들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동향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으나(남궁미, 박정은, 2020; 이현진, 김명찬, 2021), 동향 연구의 경우 연구 결과의 내용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특정 질적 연구에서 보고된 경험이 다른 연구에서도 관찰되는 보편적인 내용인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결과의 주요 주제들을 조직화하고 통합적으로 해석하는데 유용한 질적 메타요약 방법을 사용하여 성소수자 성적체성 발달과정의 관련 요인들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성소수자 성적체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모형의 근거가 되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추후 이들을 위한 심리서비스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성소수자를 구분하는 기준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은 독립된 특성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이하 LGB) 집단만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메타요약을 통해 LGB 집단의 성적체성 형성 과정의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질적 연구 결과들을 추출하여 축약진술문으로 합치고, 각 축약진술문 별로 빈도를 확인하여, 성적체성 형성 경험에서 나타나는 보다 보편적 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소수

자의 심리적 수준과 사회적 수준에서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을 비교하여 정체성 발달에 작용하는 요인들의 상반되는 영향력을 통합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에 작용하는 역동적 요인들을 아우르는 이해의 기초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심리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성소수자들의 정체성 발달을 촉진 및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성소수자들의 정체성 발달을 촉진 및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은 무엇인가?

방 법

질적 메타요약

질적 메타요약은 질적 메타 합성(Qualitative Metasynthesis) 방법 중 하나로, 질적 연구들의 공통된 주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다(Sandelowski, 2012). 이는 질적 연구물들을 양적으로 정리하는 분석방법으로, 질적으로 수집된 자료를 항목별로 묶어 항목 조사 수준에서 질적 자료를 제시하는 방법과, 연구자가 파악한 자료의 잠재적인 패턴이나 반복을 특

정하여 주제 조사 수준에서 전달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Sandelowski & Barroso, 2007). 본 연구에서는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질적 자료들을 수집하고 통합한 뒤 주제별로 요약하여, 정체성 형성과 관련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주제 조사 수준의 질적 메타요약을 채택하였다. 질적 메타요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질문을 구체화하고, 연구물 수집 기준에 따라 연구물을 수집한다. 그런 다음 연구 질문과 관련된 진술문을 추출하고, 동일 주제에 대해 설명한 진술문을 축약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축약진술문 별 빈도효과 크기를 구하고, 각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를 산출한다. 빈도효과 크기는 해당 축약진술문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는 연구물의 수를 분석대상 연구물의 총 수로 나눈 값으로 진술문이 연구물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핵심적인 주제를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강도효과 크기는 특정 연구에서 추출한 축약진술문 수를 전체 연구에서 추출한 축약진술문의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해당 연구가 전체 추출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준다(Sandelowski & Barroso, 2007). 빈도효과 크기와 강도효과 크기의 산출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각 축약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 = \frac{\text{해당 축약진술문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연구물의 수}}{\text{분석대상 연구물의 수}} \times 100$$

$$\text{각 연구의 강도효과 크기(\%)} = \frac{\text{각 연구물에서 추출한 축약문의 수}}{\text{추출된 축약진술문의 총수}} \times 100$$

연구대상

본 연구는 국내 성소수자의 긍정적 성적체성 발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자료를 수집하였다.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 과정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이현진, 김명찬, 2021),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RISS, KISS, Google Scholar와 같은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검색어로 성소수자, 동성애, 레즈비언, 게이, 정체성을 입력하여 나온 자료 39개를 토대로 논문에 분석할

표 1. 분석 대상 연구물 특성

분석 논문	출간 유형	출간 연도	학문 분야	연구목적	서술된 연구방법 (방법/자료수집/자료분석)	표본 수/구성(특성)
A	학술 논문	2019	간호학	한국 사회에서의 동성애자의 삶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함	심층면접/소개 및 눈덩이표집/현상학적 방법(Coaizzi)	8명(여성 6명, 남성 2명)/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스스로 동성애자로 정체화한 자
B	학술 논문	2018	여성학	여성 동성애자의 차별과 배제를 알아보고 해결 방안 제안	현상학적 연구-콜라이지(Claizzi 연구방법참조) 심층면접/3번 인터뷰 귀납적 분석	6명(여성)/동성애자 또는 양성애자로 자신을 정체화한 여성
C	학술 논문	2017	교육학	청소년 성소수자의 발달적 경험과 특성을 이해하기 위함	심층면접 3회 문서자료 수집하여 분석 실용적 질증주의에 기반한 포괄적 분석절차(김영천, 2016) 따름	6명(여성 3명, 남성3명)/고등학생 양성애 2명, 레즈비언1명, 게이2명, 범성애(성애 구애 받지 않음) 1명
D	학술 논문	2015	심리학	남성 대학생의 사회 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을 탐색하고자 함	합의적 질적연구방법 반구조화된 면접 1회(100분) 귀납적 분석	9명(남성)/동성애자, 대학생
E	학술 논문	2012	청소년학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성적체성을 긍정적으로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질적연구법/심층면접1~3회/눈덩이표집/(내러티브)주제 분석	7명(남성 3명, 여성 4명)/16~18세 성소수자
F	학술 논문	2018	사회학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을 연구함	페미니스트 질적 연구방법론/심층면접 문헌연구/지인 소개, 인권단체, 커뮤니티 등 눈덩이표집	17명(남성)/성소수자
G	학술 논문	2021	상담학	레즈비언 대학(원)생의 긍정적 성적체성 형성 과정을 살펴보고자 함.	질적 연구/ 근거이론/ 심층면접	10명(여성)/동성애자, 대학과 대학원 재학(7명 비대면 면접)
H	학술 논문	2020	청소년학	남성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적 정체감 형성과정을 연구함	내러티브 탐구/ 질적 연구/ 심층 면접	2명(남성)/동성애자(3개월 간 1000분)
I	학술 논문	2021	사회복지학	한국 성소수자 청년의 성적체성형성 경험을 탐색함	보편적 질적연구/ 심층 면접	8명 성소수자(동성애, 양성애, 범성애 8명, 트랜스젠더 1명)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39개의 자료 중 정체성 형성이 확고해진 이후의 경험을 다룬 내용 등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성 형성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경험을 주요하게 다룬 연구물은 다른 성소수자의 경험과 정체성 확립 과정에서 이들이 경험하는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경험이 다른 성소수자들과 이질적이었으므로 분석 연구물에서 제외하였다. 동료 검증을 거치지 않은 학위 논문은 연구의 질을 평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분석에 포함된 연구물은 총 10편이었다.

분석에 참여한 최종 10편의 분석물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 방법,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

내러티브 탐구 방법, 심층 면담 방법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각 논문에 포함된 표본 수는 2-17명의 남녀 성소수자였다. 연구물의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연구팀은 각 연구물에 포함된 내용이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한 후 각 연구물의 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2017)를 사용하였으며,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연구에 포함된 논문의 연구의 질 평가 점수는 모두 9-10점 사이에 있었다. 각 연구물의 강도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세 편의 연구(A, G, I)의 결과가 축약 진술문 생성에 주요하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분석대상 연구물의 질 평가

	A	B	C	D	E	F	G	H	I
연구의 목적 진술이 명확한가?	y	y	y	y	y	y	y	y	y
질적 연구방법이 타당한가?	y	y	y	y	y	y	y	y	y
연구목적에 다루기에 연구설계가 적절하였는가?	y	y	y	y	y	y	y	n	y
모집계획이 연구목적에 적절하였는가?	y	y	y	y	y	y	y	y	y
연구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했는가?	y	y	y	y	y	y	y	y	y
연구자와 참가자간의 관계가 충분히 고려되었는가?	y	y	y	y	y	y	n	y	y
윤리적 문제가 고려되었는가?	y	y	y	y	y	y	y	y	y
데이터 분석은 충분히 엄격했는가?	y	n	n	y	y	y	y	y	y
결과물에 대한 명료한 진술이 있는가?	y	y	y	y	y	y	y	y	y
연구가 얼마나 가치 있는가?	y	y	y	y	y	y	y	y	y
y=예	10	9	9	10	10	9	9	9	10
강도효과 크기(%)	62.5	16.7	20.8	16.7	41.7	20.8	79.1	29.1	70.8

자료분석

선정된 논문들은 텍스트 분석을 통해 의미 있는 단어, 문장, 관련 단락을 추출하여 참여자가 의미하는 공통 개념들을 정립한 이후 공통 개념을 토대로 공통 내용들을 범주화하는 귀납적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분석에 참여한 연구팀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분석과정에서 연구팀은 분석 내용을 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연구물 분석의 신뢰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분석 결과는 교신저자의 자문을 받아 자문 내용을 토대로 결과를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거쳤다. 분석과정을 통해 각 연구물에서 추출된 축약 진술문을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크게 네 영역으로 분류하였고, 각 영역에 속한 진술문을 다시 비슷한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요약하고자 하였다.

결 과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영역 및 범주

성소수자의 정체성 수용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10편에 대한 질적 메타연구를 실시한 결과 관련 연구에서 추출된 진술문은 총 179개였고, 진술문의 내용에 따라 요약한 결과 총 34개의 축약진술문이 산출되었다. 34개의 축약진술문은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과 촉진하는 요인,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크게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네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아울러 네 영역으로 분류된 축약 진술문을 주제별로 범주화하여 요약하였고, 영역별 범주와 축약 진술문은 표 3에 제시하였다.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중 촉진요인은 7개의 축약 진술문이 분류되었고, ‘정체성을 탐색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고자 스스로 노력함.’, ‘사회적 자원(타인의 지지)을 마련하려 노력함.’, ‘사회구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의 소수자 층에 대해 공감하게 됨.’의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심리적 요인 중 저해요인으로는 8개의 축약 진술문이 분류되었다. 축약 진술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함.’, ‘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숨기고 살아감.’, ‘이성에주의를 내면화하며 성소수자의 삶을 비관적으로 인식함’의 3개 내용 범주로 요약되었다.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중 촉진요인은 8개의 축약 진술문이 분류되었고, ‘가족이 정체성을 수용하고 포용받음.’, ‘주변 사람들(친구, 동료)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음.’,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함.’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에서 이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증가함.’, ‘파트너와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연인으로서 관계 맺음.’의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요인 중 저해요인은 11개의 축약 진술문이 분류되었고, ‘가족과 친구로부터 커밍아웃 후 수용 받지 못함.’, ‘가까운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학교, 직장) 적대적 반응 (따돌림, 혐오, 폭력)을 경험함.’, ‘성소수

표 3.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촉진요인(해당 연구물)	빈도효과 크기(%)	저해요인(해당 연구물)	빈도효과 크기(%)
	성정체성 탐색과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고자 스스로 노력함		자신의 성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함	
	•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C, E, G, I)	44.4	• 자신의 성적 지향성을 수용하는 것을 부정함(A, G, H, I)	44.4
	•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함(A, G, I)	33.3	• 성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 죄책감,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A, G, I)	33.3
			•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G, I)	22.2
	사회적 자원 (타인의 지지)을 마련하려 노력함		성정체성이 알려질까봐 두려워 숨기고 살아감	
심리적	•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함(A, E, G)	33.3	• 성정체성이 약점인 것 같아 숨김(A, G, H)	33.3
	• 미래계획을 수립할 때 동성애 정체성을 고려함(E, G, I)	33.3	•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A, D)	22.2
	• 주변에 지지집단을 형성함(A, G, H)	33.3	•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할까봐 두려움(D, I)	22.2
	사회구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의 소수자 층에 대해 공감하게 됨		이성애주의를 내면화하며 성소수자의 삶을 비관적으로 인식함	
	• 기존의 사회구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저항함(E, F, H)	33.3	•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면화함(A, I)	22.2
	•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돕고자 함(G, H, I)	33.3	•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움츠러듦(A, I)	22.2
	가족이 성정체성을 수용하고 포용받음		가족과 친구로부터 커밍아웃 후 수용 받지 못함	
	• 커밍아웃 후 가족이 수용하고 지지함(D, E, F, G, I)	55.5	• 가족들이 성정체성 수용을 피함(A, B, C)	33.3
			• 가족들로부터 성정체성 수용을 거절당함(E, G)	22.2
사회적	주변 사람들(친구, 동료)에게 정서적 지지를 받음		•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성정체성을 수용받지 못함(E, I)	22.2
	• 친구(peers)에게 지지를 받음(A, D, E, G, I)	55.5		

표 3.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계속)

축진요인(해당 연구물)	빈도효과 크기(%)	저해요인(해당 연구물)	빈도효과 크기(%)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함		가까운 사회적 관계 내에서 (학교, 직장) 적대적 반응 (따돌림, 혐오, 폭력)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더 넓은 관심과 이해를 갖게 됨(E, G, H, I) 	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적 동성애 혐오 반응을 경험함(A, B, G, H, I) 	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음(D, E, G)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폭력을 경험함(B, C, F, I) 	4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간 관계와 경험의 폭이 확장됨(E, G, I)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적 동성애 혐오 반응을 경험함(A, G, I) 신체적 폭력을 경험함(B, I) 	33.3 22.2
사회적		성소수자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제도적인 차별을 경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보 수집과 학습이 용이해짐(A, D, I)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함(A, B, C, F, G, I) 	6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전보다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A, E, G) 	3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소수자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함(A, C, F, G)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경험함(A, G, I) 사회적 지지체계가 빈약함(A, I) 	44.4 33.3 22.2
파트너와의 관계에서의 정체성을 수용하고 연인으로서 관계 맺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상호 이해와 정서적 지지를 경험함(D, G) 	22.2		

자이기 때문에 사회 문화 제도적인 차별을 경험함.’의 3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심리적 및 사회적 영역별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 요인

성소수자 정체성 발달에 관여하는 영역별 요인들을 빈도효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인들에는 정체성에 대한 수용과 이에 기반한 적극적 사회 참여를 반영하는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반영하는 “직간접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짐”은 44.4%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는데, 해당 진술문에는 ‘정보 수집, 공부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고자 노력함’,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체성을 탐색함’이 포함되었다. 성소수자들

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경험하거나 정체성 통합에서 어려움이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 있고, 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일부 성소수자는 스스로 공부하고 정보를 수집하면서 정체성 통합을 시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는 성소수자들이 개인적으로 정체성 통합을 위해 노력하면서 또한 사회적 역할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있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함’은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33.3%의 효과 크기를 보였다. 진술문에는 ‘한 명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삶을 잘 꾸려나가며 더 노력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됨’과 같은 진술문이 포함되었다. 이는 성소수자들이 차별 등의 경험을 하며 겪는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직업적, 학업적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며, 성소수자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대처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심리적 추가 심리적 요인으로 성소수자들이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사회구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 향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있었다. ‘기존의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저항함’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돕고자 함’은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33.3%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기존의 사회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저항함’에 해당하는 진술문은 ‘남성 중심적, 이성애 중심적 문화를 비판

적으로 바라보게 됨’, ‘이성애중심 가치와 문화의 폐해에 대해 비판적으로 보게 됨’ 등이 포함되었다. 이 진술문들에서는 앞선 대처양식과는 다르게, 성소수자들이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이 부당함을 느낀 후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내재화하지 않고 구조적 문제임을 자각함으로써 비판적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돕고자 함’ 축약진술문에 해당하는 진술문들은 변화를 위한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로서 구체적으로 ‘여성, 이민자와 같은 다른 사회적 약자의 권리 옹호에도 관심이 생김’, ‘소수자에 대한 공감 능력과 인권 감수성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됨’이었다. 이러한 해당 진술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이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통해 인권감수성을 발달시키고,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을 다른 성소수자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의 성소수자 성정체성을 촉진하는 심리적 요인과 관련된 축약진술문은 2개로 ‘미래 계획을 수립할 때 동성애 정체성을 고려함’, ‘주변에 지지집단을 형성함’이 있었다.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들이 포함되었다. 가장 빈도효과 크기가 큰 것은 ‘성정체성이 약점인 것 같아 숨김’(빈도효과 크기 33.3%)으로, 축약진술문은 다음과 같았다. ‘이성교제나 결혼에 대한 화제가 나오면 외출타기 하는 것처럼 거짓과 사실이 뒤섞인 잘 포장된 자신을 보여야 함’, ‘이성애자와 동성애자의 범주를 오가며 이성애자인 척 연기하며 살아감’, ‘동성애적 지향성을 은폐하고 이성애자인 척 행동함’. 이 진술문들을 통해 사회에서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차별과 낙인을 피하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기 보다는 숨기며 살아가는 대처양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외에 성소수자들의 성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자신의 성정체성에 대해 확신하지 못함’, ‘자신의 성정체성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 두려움’, ‘친밀한 관계에서 거부당할까봐 두려움’,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면화함’,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에 움추러듦’, ‘성정체성을 수용하는 것이 어려워 죄책감, 우울,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경험함’이 있었다.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지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커밍아웃 후 가족이 수용하고 지지함”과 ‘친구(peers)에게 지지를 받음’ 두 축약진술문의 빈도효과 크기는 55.5%로 성소수자들이 가족과 친구로부터 정체성을 수용받는 것이 성정체성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커밍아웃 후 가족이 수용하고 지지함’ 진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에게 커밍아웃 하였을 때 수용 받음’, ‘가족의 수용으로 인한 위로’,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도움이 됨’ 등의 진술문이 있었다. ‘친구(peers)에게 지지를 받음’의 진술문들을 살펴보면,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 커밍아웃하고 수용 받음’, ‘친구/지인들이 성소수자로서의 삶의 어려움을 걱정하고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격려함’, ‘친구/지인들의 금전적인 지원’ 등의 진술문이 있었는데, 성소수자들이 주변 친구들의 정서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는 것이 정체성을 수용하는 데 긍정적인 사회적 요인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커뮤니티나 친구들과 같은 주변인들의 지지도 성소수자 성정체성 형성을 촉진하는 사회

적 요인으로 드러났다.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음”은 네 번째로 높은 33.3%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이 축약진술문을 형성한 진술문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내에서 동질감을 느끼며,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이해받을 수 있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온라인/오프라인 모임에서 직접적인 도움과 지지를 받음’ 등이 있었다. 각 진술문들의 내용에서 성소수자들은 소수자로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소속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자기개방을 통해 수용 받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에 성정체성 발달을 촉진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깊이 있는 상호 이해와 정서적 지지를 경험함’,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공감과 지지를 받음’,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인간관계와 경험의 폭이 확장됨’과 ‘정보기술의 발달로 사회에서 이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증가함’이 있었다. 이러한 진술문들을 통해, 사회적 지지를 통해,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는 것도 성소수자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성소수자 성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차별과 혐오를 반영하는 요인들이 포함되었다. ‘사회에서 차별을 경험함’은 가장 높은 빈도효과 크기(66.6%)를 보였는데, 해당하는 진술문들을 몇 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 진급시험에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떨어짐을 알게 됨’, ‘군대 내에서 동성애 혐오를 제도적으로 정당화함으로써 정체성을 드러내면 차별과 처벌에 노출됨’, ‘차별과 배제 등 사회적 부정적 낙인

을 경험함'. 이 진술문을 통해 성소수자가 직장, 군대와 같은 조직에서 혹은 사회 전반적으로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의 성적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가까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적대적인 반응을 자주 경험함이 있었다. '간접적 동성애 혐오 반응을 경험함'이 성소수자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 55.5%의 빈도효과 크기를 나타냈다. '간접적 동성애 혐오 반응을 경험함'에 해당하는 진술문으로는 '동성애 혐오성 괴롭힘을 간접적으로 경험함', '신문 등 매체를 통해 동성애 혐오 발언을 접함' 등이 있었다. 이러한 진술문들을 통해 다수에 해당하는 집단들이 가치관이 다른 소수를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대하며, 매체는 사회의 성소수자 혐오적인 측면을 성찰 없이 표현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타당화하고 재생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적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다른 사회적 요인으로, '정신적 폭력을 경험함'과 '성소수자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함'이 44.4%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다. '정신적 폭력을 경험함'의 구체적인 진술문들을 살펴보자면, '아웃팅 이후의 은근한 따돌림', '커밍아웃 이후 함께 일하던 직장 동료들이 편견 가득한 시선을 보내고 평소 잘 지내왔던 동료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고 함께 하는 자리를 피하는 등의 경험을 함.', '학교에서 조롱의 대상이 됨' 등의 진술문 등이 있었다. '성소수자가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당함' 축약진술문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동성애자가 지금 옆에 존재하리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재를 존중받지 못함', '군대에서 동성애자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으로 전

제함', '교육과정과 수업에서의 부정당하는 존재가 됨' 등으로 학교와 군대, 주변 사람들이 성소수자의 존재를 가정하지 않음으로서 성소수자들의 존재가 비가시화되고, 이는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존재를 감추게 되는 사회적 맥락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3%의 빈도효과 크기를 보인, 성소수자 성적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은 '직접적 동성애 혐오 반응을 경험함'이었다. 해당 축약진술문은 '동성애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하도록 강요받음', '동성애자임을 알게 된 친구의 폭력과 따돌림을 경험함' 등으로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체성을 부정하거나 혐오하는 반응을 주변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빈번하게 경험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외에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가족들이 성적체성 수용을 피함',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경험함'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진술문들을 통하여 성소수자들이 가족들과 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낙인을 경험하는 것이 성적체성 발달 과정에서 혼란감과 죄책감을 가중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의 부재도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질적 메타요약을 통해 국내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 다차원적 요인들이 한국 성소수자 인구의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요

인들은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 긍정적인 사회적 요인, 부정적인 사회적 요인, 총 4개의 영역으로 조직화되었다.

먼저, 성소수자들의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면 정체성을 탐색하며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넓히고 자 스스로 노력하는 것, 사회적 자원(예> 타인의 지지)을 마련하려 노력하는 것, 사회구조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사회의 소수자에 대해 공감하고자 하는 것, 동성애에 대해 열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수용하지 못하는 것, 성소수자의 삶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것,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내면화하는 것, 정체성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여 숨기는 것,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 중 보다 많은 연구에서 보고된 내용은 정체성을 수용하고 통합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성적 지향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적극적으로 설득하며, 성소수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고, 미래를 계획하는 등의 노력이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수용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였다. 커밍아웃은 Cass(1979)의 경우 정체성 통합의 지표로 제시하고 있으며, 선행 연구들에서도 자신의 성적 지향을 더 많이 개방한 사람일수록 높은 자존감과 낮은 우울감, 낮은 불안과 소진 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Juster, Smith, Ouellet, Sindi, & Lupien, 2013; Kosciw, Greytak, Bartkiewicz, Boesen, & Palmer, 2012). 하지만 McCarn과 Fassinger(1996)은 반드시 커밍아웃만

이 정체성의 통합과 성숙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전략적으로 정체성을 개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도 보았다. 실제로 일터에서의 정체성 개방은 차별에 대한 스트레스를 상승시키고, 실제 차별로 이어지기도 하였으며(Waldo, 1999), 높은 수준의 부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었다(Huebner, & Davis, 2005). 또한 청소년의 경우 커밍아웃은 또래 괴롭힘, 학업 수행의 어려움 등의 부정적 결과와 관련을 보이기도 하였다(Kosciw et al., 2012). Riggle 등은 ‘진실성(Authenticity)’이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진실되고 편안한 마음을 느끼는 것,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게 공유할 수 있는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해 논의하였다(Riggle, Whitman, Olson, Rostosky, & Strong, 2008; Rostosky, Riggle, Pascale-Hague, & McCants, 2010). 커밍아웃이 대인관계 내의 행동을 초점을 두고 있다면, 진실성은 행동의 동기가 되는 내적 상태에 가깝다. 경험적 연구에서도 높은 수준의 진실성은 심리적 웰빙, 낮은 수준의 우울감과 지각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었다(Riggle, Rostosky, Black, & Rosenkrantz, 2017). 본 연구에서의 결과 또한 참여자들이 단순히 자신의 성적 지향을 외부에 밝히는 것을 넘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정체감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통합하여 살아가지 하는 태도가 중요함이 밝혀졌다.

한편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심리적 자원에는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적 자원을 구축하고 더 나아가 기존의 사회적 편견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체성의 발달은 자신에게 부여된 성소수자라는 사회적

정체성을 자기-개념에 통합하고, 자신이 소속된 사회적 집단 구성원들과의 연대감을 발달시켜 나가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Tafel, 1981). 소수자들의 경우 자신들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편견과 혐오를 새롭게 인식하고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정체성 발달에 필연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러한 인지적 재평가는 자신과 같은 소수자 정체성을 가진 집단 구성원들과 교류하고, 소속감을 느끼면서 강화될 수 있으며,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수 인종의 청소년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과 연결감을 가지고, 비판적 의식(critical consciousness)을 가짐으로써 더 나은 적응과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ng, Eccles, & Sameroff, 2003; Zimmerman, Ramirez-Valles, & Maton, 1999).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소속감을 느끼고, 차별에 대해 비판적 의식을 가지는 것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enhancement)와 정체성 수용을 촉진하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 Michele, 2012; Wagaman, 2016). 또한 성소수자로서 기존 체계에 비판적 의식을 가지는 것은, 사회적 정의 전반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키고, 변화를 위해 행동하는 것으로 이어지기도 한다(Riggle et al., 2008, 2012; Sung et al., 2015).

반면 부정적인 심리적 요인 역시 확인되었는데, 성적정체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숨기고자 하며,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내면화하는 것은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성적 지향을 부정하는 것은 가장 큰 빈도효과 크기를 보였는데, 이는 Cass(1979), Troiden(1988), McCarn과 Fassinger(1996)와 같은 성적정체성 발달 이론가들

이 제시한 성적정체성 발달의 초기 단계에 해당한다. 즉, 혼란 또는 탐색의 단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적정체성을 충분히 수용하게 되면, 스스로에 대해 더 이해하고 만족하며, 자신이 속한 소수자 집단에 소속감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전념하는 이후 단계로 나아가지만, 부인이나 회피, 타협 등으로 탐색을 중단하게 되면 성적 지향뿐만 아니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한 경우 사회적 차별에 대한 완충제를 가지지 못하는 것과 같으며, 자존감이 저하되고, 스스로에 대해 삶에 만족하고 전념하기 어렵다고 느낄 가능성이 높다(Branscombe, & Ellemers, 1998; Rosario, Schrimshaw, & Hunter, 2011). 또한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어려움에도 더 취약해지게 된다(Meyer, 2003; Rosario et al., 2011). 이러한 결과는 성적정체성 형성 과정의 이전 단계에서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적정체성을 충분히 탐색하고 수용하는지 여부가 이후 단계의 성적정체성 발달과 성숙을 촉진하거나 저해한다는 성적정체성 발달의 단계 이론(Cass, 1979; Troiden, 1988; McCarn & Fassinger, 1996)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성적정체성 발달을 저해하는 또 다른 심리적 요인으로는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는 것,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이성애주의를 내면화하는 것이 있었다. 성소수자들은 많은 경우 낙인과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성적 지향을 숨기며(concealment), 이는 일종의 대처 방식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Meyer, 2003), 그로 인한 상당한 스트레스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된다. 즉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스스로를 검열하는데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많은 에너지를 기울일 수밖에 없으며(Smart &

Wegner, 2000),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자신, 솔직한 감정을 개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은 제한된다(Pennebaker, 1995). 또한 다른 성소수자들과 교류하며 사회적 지지 기반을 넓히고, 사회적 편견에 대해 재평가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 보다 수용하게 되는 등의 심리적 자원은 개발하기 어렵게 된다.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낮은 심리적 웰빙과 관련되어 있었으며, 높은 수준의 우울 증상과도 관련성을 보였다(Bruce, Harper, & Bauermeister, 2015; Selvidge, Matthews, & Bridges, 2008). 또한 정체성을 숨기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을 부여하는 것 즉 내면화된 부정적 편견(internalized homophobia)과도 높은 연관성을 보였다(Jackson & Mohr, 2016). 내면화된 부정적인 편견은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편견대로 자신을 바라보고, 스스로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Meyer & Dean, 1998), 본 연구에서도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심리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들은 정체성을 발달시켜나가면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과 태도를 변화시켜 나가지만, 초기 사회화 경험과 반 동성애적 사회 분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전 생애에 걸쳐 내면화된 부정적 편견의 영향을 경험한다(Meyer, 2003). 내면화된 편견은 미묘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으며(Gonsiorek, 1988), 우울과 불안, 물질 사용, 자살 사고 등의 부정적인 정신건강 지표와 관련되어 있다(Meyer & Dean, 1998; Williamson, 2000).

성소수자의 정체성 발달에 있어 사회적 요인 역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은 가족의 정체성

수용, 친구나 동료 등 주변 사람들의 정서적 지지, 파트너와의 깊이 있는 관계와 상호지지,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 사회에서 이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증가한 것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에는 커밍아웃 후 가족과 친구로부터 수용 받지 못하는 것, 학교나 직장에서 따돌림이나, 혐오 발언, 언어적/신체적 폭력 등의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것,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 문화, 제도적 차별이 있었다.

먼저 긍정적인 사회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회적 맥락인 가족은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커밍아웃 후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족에게서 성적 지향을 수용 받는 경험을 하는 경우, 이는 정체성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 부모의 정체성 수용 여부가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전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Mohr, & Fassinger, 2003). 또한, 선행 연구에서는 가족 치료를 통해 부모의 태도가 수용적으로 변화했을 때에 성소수자 자녀의 우울, 불안, 자살 사고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건강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iamond & Shpigel, 2014).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성소수자 커뮤니티도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체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발달적인 특성을 고려할 때 또래 친구의 수용이나 거부하는 정체성 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본 질적 메타요약에 포함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가까운 친구로부터 수용 받지 못한 경험이 상처가 되었다는 보고도 있었지만, 친한 친구들의 지지와 수용 경험을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연구물이 많았다. 참여자들은 가족보다 친구에게 먼저 커밍아웃하고 수용 받음으로써 용기를 얻게 되곤 하였으며, 가족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대신 친구들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성소수자들에게 친구가 부모보다 커밍아웃에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친구를 부모보다 더 큰 지지자 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국외 연구들과 비슷한 결과이다(Beals & Peplau, 2006, Mufioz-Plaza et al., 2002). 또한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는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 성소수자로서의 경험에 대한 타당화를 통해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도록 할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 다양하고 넓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소수자와 인권에 대한 더 넓은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경험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도 성소수자 커뮤니티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심리적 적응을 보였으며 (Morris et al., 2001), 자존감 또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alpin & Allen, 2004; Swann & Spivey, 2004). 성적체성 발달의 단계 이론에서는 다른 성소수자들과 접촉하고, 성소수자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성소수자의 권익을 위해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것을 성숙된 성적체성 발달의 지표로 보기도 한다(Cass, 1979; McCarn & Fassinger, 1996; Troiden, 1989). 성소수자 커뮤니티 참여는 성적체성 성숙의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성소수자 커뮤니티의 존재는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성적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맥락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은 긍정적인 사회적 맥락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가족 구성원들이 성적체성 수용을 회

피하거나 비난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 또한 많이 보고되었다. 선행 연구들에서도 가족의 거부는 성소수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Diamond, Shilo, Jufgenssen, D'Augelli, Samarova, & White, 2011). 더욱이 한국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 기획단(2007)의 조사 결과, 한국 사회에서는 성소수자 자녀의 커밍아웃 후 아버지의 4.7%, 어머니의 11.1%만이 수용의 반응을 보였고, 조사에 응한 성소수자의 14.4%가 가족이나 친구와 연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남녀 성소수자 12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한 김진이(2017)의 연구에서도, 가족들은 커밍아웃에 대해 대부분 거부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만 수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수용을 경험한 소수의 참여자는 안정감을 느끼고 가족과의 관계도 더 가까워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분노, 슬픔, 불안을 느끼고, 알코올 의존도가 높아졌고, 심할 경우 자살 사고 및 시도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성소수자들은 사회적 편견보다 가족의 편견이 더 큰 상처가 된다고 보고하는 만큼, 가족의 영향력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든 부정적인 방향으로든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친밀한 친구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넓은 사회적 맥락인 학교, 직장, 군대 내에서는 직간접적인 동성애 혐오 반응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폭력 등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고가 많았다. 가족 다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사회인 학교에서 성소수자들은 교사나 또래들이 공공연하게 동성애 혐오 발언을 하는 것을 듣곤 했다. 또한 학교, 직장, 군대에서 성소수자로 의심받을 때는 아웃팅을 당하거나, 집단 따돌림, 조롱, 혐오 발언, 감시와 같은 정신적 폭력, 나아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에 노출되었

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장서연 외, 2014)에 따르면, 연구에 참여한 만 13~18세 성소수자 청소년 200명 중 80%의 응답자가 교사로부터 ‘동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동성애는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등의 일반적인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20%는 모욕, 아웃팅, 체벌 등의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동료 학생들에게는 92%의 응답자가 일반적인 혐오표현을 들었으며, 성소수자들 중 54%가 다른 학생으로부터의 괴롭힘을 경험하였고, 놀림이나 모욕은 47.5%가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10%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으며, 신체적 폭력을 당한 경우도 4.5%에 이르렀다. 이처럼 성소수자들에게 가해지는 학교 폭력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스스로에 대한 부적절감,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하는 느낌, 불안, 우울 등의 정서적 스트레스뿐만 아니라(Birkett et al., 2009; Bontempo & D’Augelli, 2002, Pearson, Muller, & Wilkinson, 2007), 성소수자 청소년 자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박지영, 2020; Dunn, Gjelsvik, & Pearlman, 2014; McDaniel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 이후의 사회 경험을 다룬 연구물 또한 포괄하고 있었는데 군대나 직장에서의 혐오와 차별, 정신적 및 신체적 폭력 또한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성소수자들의 성적체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86명의 만 20세 이상 성소수자 성인들에게 설문을 실시한 결과에서도(장서연 외, 2014), 법적 성별과 성별 표현(겉모습, 말투, 행동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남성의 70.6%, 여성의 73.6%가 채용과정에서부터 차별을 경험하였으며, 직장 내에서

동성애 혐오 및 차별, 반동성애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여성의 46.5%, 남성의 42.1%가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친 288명 중 37.7%가 관심 사병으로 분류되어 감시와 차별에 노출되었으며, 34%는 신체적 성추행이나 성폭행, 27.4%는 언어적 성폭력을 경험하였다고 보고하여,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소수자에 대해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차별과 혐오의 시선, 제도적 차별의 영향과도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종합하면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에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함께 작동하며 이를 통해 정체성 발달이 촉진되거나 저해받는 것으로 보인다.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을 비교하면, 보다 많은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빈번하게 보고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와 같은 친밀한 관계에서의 수용이 중요한 긍정적 요인인 반면, 혐오나 차별의 경험은 보편적인 부정적 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는 성소수자가 적응적이고 건강한 정체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 지지 기반의 구축과 성소수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태도가 요구됨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학술적, 실무적 함의를 가진다. 먼저 학술적 함의로, 본 연구는 성소수자의 성적체성 형성과 관련된 질적 연구물들을 통합하여 살펴봄으로써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의 틀을 제시하였다. 성소수자들의 성적체성 발달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이뤄진 질적 연구들은 성적체성과 관련된 개인의 내적 경험에 집중하거나(박지수, 남상인, 2020; 정혜숙, 2021; 주재홍, 2017), 성적체성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

로 영향을 미치는 특정 사회적 맥락에 주목하는(김하영, 2018; 정성조, 이나영, 2018)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는 성소수자들의 삶의 경험과 그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심도 있게 살펴본다는 함의를 가지지만, 성적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내외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살펴보기는 어려웠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여러 연구물들을 관통하는 보편적인 주제를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이제까지 주로 이론상으로 제시되었던 성적체성 형성 이론에 대한 경험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의의를 갖는다. 즉 성적체성 발달의 단계 이론에서는 성적 지향의 수용과 편견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통해, 점차 자신의 성적체성을 받아들이고 외부 지지자원을 마련하며, 이상적으로는 성소수자로서 자기 자신 및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향으로 발달해나가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Cass, 1979; Troiden, 1988; McCarn & Fassinger, 1996). 본 연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심리적 요인과 부정적 심리적 요인은 성적체성 발달의 이전 단계에서 충분한 자원을 획득했는지 여부와 성격의 개방성 정도가 이후 단계의 발달을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적체성 발달의 단계 이론을 지지하고 있다. 또한, 성적체성 형성에 다양한 수준과 맥락의 사회적 지지 및 낙인, 편견의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추가로 하이라이트 하고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상담 현장에 필요한 실천적인 제언을 한다면, 성소수자의 정신 건강과 성적체성 발달에 가족이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성소수자 가족에 대한 상담적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성소수자를 자녀나 형제로 둔 가족에게 그들의 지지가

당사자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가족을 신뢰하여 커밍아웃 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도록 도우며, 가족들이 당사자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의사소통 하도록 촉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김진이, 2017). 또한 부모가 자신의 성적체성을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가족에게 당장의 이해를 기대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필요하겠다(Mayeno, 2015). 가족의 지지와 더불어 친구와 커뮤니티 활동도 성적체성 발달에 중요한 요인이었기에 성소수자들의 성적체성 형성과 건강한 적응을 위해 커뮤니티 조직과 활동을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으며, 상담자를 비롯한 조력 전문가들은 국내 성소수자 단체 및 커뮤니티에 대해 인지하고 성소수자들 내담자들이 그러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다.

정책적인 제언을 위해서는 연구 결과에서 보고되는 사회제도적 차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소수자들은 소속된 집단 내에서의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제도적 차별, 성소수자를 혐오의 대상 또는 비가시적 존재로 취급하는 문화적 차별 등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의 영향은 개인에게 직접 전달되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맥락(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의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고, 정당화하는 것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이를 고려할 때 미시적 맥락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차별 금지법 제정, 동성 결혼의 합법화, 다양한 성적 지향에 대한 교육과 적극적인 캠페인 등을 통한 사회 문화적, 제도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질적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고 보다 보편적인 요인을 발견하고자 질적 메타요약을 사용하였다. 질적 메타요약의 경우 이질적인 질적 연구물의 결과를 요약하여 정체성 형성에 도움이 되거나, 정체성 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볼 수 있다는 강점이 있으나, 이들 요인들의 상호작용과 발달과정을 묘사하는데에는 제한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메타합성(Grounded Theory Metasynthesis)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이들 요인이 어떠한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 포함된 질적 연구들의 강도효과 크기를 살펴보면 일부 연구물들의 결과가 보다 많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들 연구물들이 본 연구의 주제인 성적체성 발달을 주요 연구 문제로 다루고 있고, 다른 연구물들의 경우 성적체성이 연구 문제의 일부로만 탐색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이해하고 활용함에 있어서 특정 연구물들의 대상이 가지는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강병철, 하경희 (2005). 청소년 동성애자의 동성애 관련 특성이 자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연구*, 12(3), 267-289.

김나나 (2017). 성소수자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관한 생애사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김송옥 (2020). 사적 영역에서 동성애자의 평등권 보장을 둘러싼 헌법적 쟁점 - 차별금지법 제정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연구*, 7(1), 207-246.

김은하, 정보현, 김하영 (2020). 레즈비언 대학(원)생의 긍정적 성적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상담학연구*, 21(2), 241-267.

김진이 (2017). 가족의 거부로 인한 성소수자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3(4), 605-634.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8(2), 183-214.

김현지, 장미영, 김정호, 송지현, 김란, 홍현주, 신성희 (2019).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삶. *동서간호학연구지*, 25(1), 69-80.

김형지, 신정훈, 연구진, 김향숙 (2015).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합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4), 811-841.

남궁미, 박정은 (2020). 성소수자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2(3), 1469-1498.

박지수, 남상인 (2020). 남성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적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청소년학연구*, 27(4), 141-167.

박지영 (2020). 성소수자 청소년 A는 왜 자살했는가?: 질적 심리부검을 통한 학급 내 집단 괴롭힘과 A의 행동결정과정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22(4), 1-36.

성정숙, 이현주 (2010). 동성애자인권활동가의 청소년기 경험과 탄력성에 관한 질적 연구

- 구. 한국아동복지학, 31, 173-204.
- 손소연, 이지하 (2016). 성소수자의 커뮤니티 참여 의미에 대한 연구 - Giorgi 현상학적 방법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8(2), 233-256.
- 손인서, 김승섭 (2015). 한국의 차별경험과 건강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보건사회연구, 35(1), 26-57.
- 윤이현, 유민희, 류재희, 박선웅 (2016). 동성애자에 대한 외현적 및 암묵적 태도.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2(3), 343-362.
- 이현진, 김명찬 (2021). 성소수자 관련 질적 연구 동향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1), 407-418.
- 이혜민, 박주영, 김승섭 (2014). 한국 성소수자 건강 연구-체계적 문헌고찰. 보건과 사회과학, 36(1), 43-76.
- 장서연, 김정혜, 김현경, 나영정, 정현희, 류민희, 조혜인, 한가람, 박한희 (2014)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정성조, 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문화와 사회, 26(3), 83-145.
- 정혜숙 (2021). 한국 성소수자 청년의 성정체성형성 경험: Eliason and Schope(2007)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5(3), 31-60.
- 주재홍 (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175-215.
- 한국성소수자사회의 의식조사기획단 (2007). 성소수자 사회의식 조사. <http://www.lgbtact.org/zbx>
- Adams, G. R., & Marshall, S. (1996). A developmental social psychology of identity: Understanding the person in context. *Journal of Adolescence*, 19, 429-442.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8). *Answers to your ques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sexual orientation and homosexuality*. Washington, DC: Author.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1). Definition of Terms: Sex, Gender, Gender Identity, Sexual Orientation. Retrieved from <http://www.apa.org/pi/lgbt/resources/guidelines.aspx>.
- Ashmore, R. D., Deaux, K., & McLaughlin-Volpe, T. (2004). An organizing framework for collective identity: Articulation and significance of multidimensionality. *Psychological Bulletin*, 130, 80-114.
- Beals, K. P., & Peplau, L. A. (2006). Disclosure patterns within social networks of gay men and lesbians. *Journal of Homosexuality*, 51, 101-120.
- Beemyn, G., & Rankin, S. (2011). *The lives of transgender people*. Columbia University Press.
- Birkett, M., Espelage, D. L., & Koenig, B. (2009). LGB and questioning students in schools: The moderating effects of homophobic bullying and school climate on negative outcome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989-1000.
- Bockting, W. O., Knudson, G., & Goldberg, J. M. (2006). Counseling and mental health care for transgender adults and loved one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genderism*, 9, 35-82.
- Bontempo, D. E., & D'Augelli, A. R. (2002). Effects of at-school victimization and sexual orientation on lesbian, gay, or bisexual youths'

- health risk behavior.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30, 364-374.
- Branscombe, N. R., & Ellemers, N. (1998). Coping with group-based discrimination: Individualistic versus group-level strategies. In J. K. Swim & C. Stangor (Eds.), *Prejudice: The target's perspective* (pp. 243-266). New York: Academic Press.
- Broido, E. M. (2000). Constructing identity: The nature and meaning of lesbian, gay, and bisexual identities. In R. M. Perez, K. A. DeBord, & K. J. Bieschke (Eds.), *Handbook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with lesbian, gay, and bisexual clients* (pp. 13-33).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Browning, C., Reynolds, A. L., & Dworkin, S. H. (1991). Affirmative psychotherapy for lesbian women. *The Counseling Psychologist*, 19(2), 177-196.
- Bruce, D., Harper, G. W., & Bauermeister, J. A. (2015). Minority stress, positive identity develo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Implications for resilience among sexual minority male youth.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 287-296.
- Cass, V. (1979). Homosexual identity formation: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Homosexuality*, 4, 219-235.
- Chesir-Teran, D., & Hughes, D. (2009). Heterosexism in high school and victimization among lesbian, gay, bisexual, and questioning stud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 963-975.
- Goodenow, C., Szalacha, L., & Westheimer, K. (2006). School support groups, other school factors, and the safety of sexual minority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43, 573-589.
- Critical Appraisal Skills Programme(CASP). (2017). *Ten questions to help you make sense of qualitative research*. Retrieved From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sa>.
- D'Augelli, A. R., Hershberger, S. L., Pilkington, N. W. (1998).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 and their families: Disclosure of sexual orientation and its consequenc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68, 361-371.
- D'Augelli, A. R. (2002). Mental health problems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ages 14 to 21.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 433-456.
- D'Augelli, A. R., Grossman, A. H., & Starks, M. T. (2005). Parents' awarenes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sexual orient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 474-482.
- Diamond, M. (2002). Sex and gender are different: Sexual identity and gender identity are different. *Clinical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7(3), 320-334.
- Diamond, L. M., & Lucas, S. (2004). Sexual-minority and heterosexual youths' peer relationships: Experiences, expectations, and implications for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 313-340.
- Diamond, G. S., Shilo, G., Jufgensen, E., D'Augelli, N., Samarova, V. & White, K. (2011). How depressed and suicidal sexual minority adolescent understand the causes of their distress. *Journal of Gay & Lesbian Mental Health*, 15, 130-151.

- Diamond, G. S., & Shpigel, M. (2014). Attachment-Based Family Therapy for Lesbian and Gay Young Adults and Their Persistently Non-accepting Parents,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 Practice*, 258-268.
- Dunn, H. K., Gjelsvik, A., & Pearlman, D. N. (2014). Association between Sexual Behaviors, 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High School Students: Implications of a Sexual Double Standard. *Journal of Women's Health Issues*, 24(5), 567-574.
- Eliason M. J. (1996). Identity Formation for Lesbian, Bisexual, and Gay Persons. *Journal of Homosexuality*, 30, 31-58.
- Ellis, A. L., & Mitchell, R. W. (2000). Sexual orientation. In L. T. Szuchman & F. Muscarella(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human sexuality* (pp. 196-231). New York: John Wiley.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lkman, S., Chesney, M., Collette, L., Boccellari, A., & Cooke, M. (1996). Postbereavement depressive mood and its prebereavement predictors in HIV+ and HIV - gay 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36.
- Gates, G. J. (2011). "How Many People ar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UCLA: The Williams Institute. 1-8.
- Gonsiorek, J. C. (1988). Mental health issues of gay and lesbi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9, 114-122.
- Halpin, S. A., & Allen, M. W. (2004). Changes in psychosocial well-being during stages of gay identity development. *Journal of Homosexuality*, 47, 109-126.
- Herek, G. M., Chopp, R., & Strohl, D. (2007). Sexual stigma: Putting sexual minority health issues in context. In *The health of sexual minorities* (pp. 171-208). Springer.
- Herek, G. M., & Garnets, L. D. (2007). Sexual orientation and mental health. *Annu. Rev. Clin. Psychol.*, 3, 353-375.
- Huebner, D. M., & Davis, M. C. (2005). Gay and bisexual men who disclose their sexual orientations in the workplace have higher workday levels of salivary cortisol and negative affect. *Annals of Behavioral Medicine*, 30, 260-267.
- Jackson, S. D., & Mohr, J. J. (2016). Conceptualizing the closet: Differentiating stigma concealment and nondisclosure processes.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3, 80-92.
- Juster, R. P., Smith, N. G., Ouellet, É., Sindi, S., & Lupien, S. J. (2013). Sexual orientation and disclosure in relation to psychiatric symptoms, diurnal cortisol, and allostatic load. *Psychosomatic Medicine*, 75, 103-116.
- Kim A. Case & Michele K. Lewis (2012). Teaching intersectional LGBT psychology: reflections from historically Black and Hispanic-serving universities, *Psychology & Sexuality*, 3(3), 260-276.
- King, M., Semlyen, J., Tai, S. S., Killaspy, H., Osborn, D., Popelyuk, D., & Nazareth, I. (2008). A systematic review of mental disorder, suicide, and deliberate self harm in

- lesbian, gay and bisexual people. *BMC psychiatry*, 8(1), 1-17.
- Kosciw, J. G., Greytak, E. A., Bartkiewicz, M. J., Boesen, M. J., & Palmer, N. A. (2012). *The 2011 National School Climate Survey: The experiences of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youth in our nation's schools*. New York, NY: Gay, Lesbian and Straight Education Network.
- Kwon, P. (2013). Resilience in lesbian, gay, and bisexual individu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7, 371-383.
- Lewis, R. J., Derlega, V. J., Berndt, A., Morris, L. M., & Rose, S. (2002). An empirical analysis of stressors for gay men and lesbians. *Journal of homosexuality*, 42(1), 63-88.
- Luhtanen, R. K. (2002). Identity, stigma management, and well-being: A comparison of lesbians/bisexual women and gay/bisexual men. *Journal of lesbian studies*, 7(1), 85-100.
- Martin, J. L. (1988). Psychological consequences of AIDS-related bereavement among gay m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56.
- Mayeno, L. (2015). Support for educators, Support for LGBTQ+ Youth, Support for service providers, *Out Proud Families* Retrieved From <http://www.outproudfamilies.com>.
- McCarn, S. R., & Fassinger, R. E. (1996). Revisioning Sexual Minority Identity Formation: A New Model of Lesbian Identity and its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Research,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4, 508-534.
- McDaniel, J. S., Purcell, D., & D'Augelli, A. R.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sexual orientation and risk for suicide: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and prevention.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1, 84-105.
- Meyer, I. H., & Dean, L. (1998). Internalized homophobia, intimacy, and sexual behavior among gay and bisexual men. In G. M. Herek (Ed.), *Stigma and sexual orientation: Understanding prejudice against lesbians, gay men, and bisexuals* (pp. 160-186). Thousand Oaks, CA: Sage.
- Meyer, I. H. (2003). Prejudice, social stress, and mental health in lesbian, gay, and bisexual populations: Conceptual issues and research evidence. *Psychological Bulletin*, 129, 674-697.
- Meyer, I. H., & Frost, D. M. (2013). Minority stress and the health of sexual minorities. In C. J. Patterson & A. R. D'Augelli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sexual orientation* (pp. 252-266). Oxford University Press.
- Mills, T. C., Paul, J., Stall, R., Pollack, L., Canchola, J., Chang, Y. J., et al. (2004). Distress and depression in men who have sex with men: The urban men's health stud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1, 278-285.
- Mohr, J. J., & Fassinger, R. E. (2003). Self-acceptance and self-disclosure of sexual orientation in lesbian, gay, and bisexual adults: An attachment perspectiv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0, 482-495.
- Morris, J. F. (1997). Lesbian coming out as a multidimensional process. *Journal of Homosexuality*, 33, 1-22.
- Morris, J. F., Waldo, C. R., & Rothblum, E. D. (2001). A model of predictors and outcomes

- of outness among lesbian and bisexual women.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1, 61-71.
- Mufioz-Plaza, C., Quinn, S. C., & Rounds, K. A. (2002).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students: Perceived social support in the high school environment. *High School Journal*, 85, 52-63.
- Pearson, J., Muller, C., & Wilkinson, L. (2007). Adolescent same-sex attraction and academic outcomes: The role of school attachment and engagement. *Social Problems*, 54, 523-542.
- Pennebaker, J. W. (1995). *Emotion, disclosure, and heal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hinney, J. S., & Ong, A. D. (2007).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ethnic identity: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 271-281.
- Riggle, E. D. B., Mohr, J. J., Rostosky, S. S., Fingerhut, A. W., & Balsam, K. F. (2014). A multifactor Lesbian, Gay, and Bisexual Positive Identity Measure (LGB-PIM).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1, 398-411.
- Riggle, E. D. B., & Rostosky, S. S. (2012). *A positive view of LGBTQ: Embracing identity and cultivating well-being*. Lanham, MD: Rowman & Littlefield.
- Riggle, E. D. B., Rostosky, S. S., Black, W. W., & Rosenkrantz, D. E. (2017). Outness, concealment, and authenticity: Associations with LGB individuals'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4, 54-62.
- Riggle, E. D. B., Whitman, J. S., Olson, A., Rostosky, S. S., & Strong, S. (2008). The positive aspects of being a lesbian or gay man. *Professional Psychology: Research and Practice*, 39, 210-217.
- Rosario, M., Hunter, J., Maguen, S., Gwadz, M., & Smith, R. (2001). The coming-out process and its adaptational and health-related associations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Stipulation and exploration of a model.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9, 133-160.
- Rosario, M., Schrimshaw, E. W., & Hunter, J. (2005). Psychological distress following suicidality among gay, lesbian, and bisexual youths: Role of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 149-161.
- Rosario, M., Schrimshaw, E. W., Hunter, J., & Braun, L. (2006). Sexual identity development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Consistency and change over time. *Journal of Sex Research*, 43, 46-58.
- Rosario, M., Schrimshaw, E. W., & Hunter, J. (2008). Predicting different patterns of sexual identity development over time among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A cluster analytic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42, 266-282.
- Rosario, M., Schrimshaw, E. W., Hunter, J. (2011). Different Patterns of Sexual Identity Development over Time: Implications for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Lesbian, Gay, and Bisexual Youths. *Journal of sex research*, 48, 3-15.
- Rostosky, S. S., Riggle, E. D. B., Pascale-Hague, D., McCants, L. E. (2010). The positive

- aspects of a bisexual self-identification. *Psychology & Sexuality*, 1, 131-144.
- Russell, S. T., Seif, H., & Truong, N. L. (2001). School outcomes of sexual minority youth in the United States: Evidence from a national study. *Journal of adolescence*, 24(1), 111-127.
- Sandelowski, M. (2012). Metasynthesis of qualitative research. In H. Cooper, P. M. Camic, D. L. Long, A. T. Panter, D. Rindskopf, & K. J. Sher (Eds.), *APA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Psychology, Vol 2: Research designs: Quantitative, qualitative, neuropsychological, and biological* (pp. 19-3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andelowski, M., Barroso, J. (2007). *Handbook for synthesizing qualitative research*.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Selvidge, M. M. D., Matthews, C. R., & Bridges, S. K. (2008). The relationship of minority stress and flexible coping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lesbian and bisexual women. *Journal of Homosexuality*, 55, 450-470.
- Smart, L., & Wegner, D. M. (2000). The hidden costs of stigma. In T. F. Heatherton, R. E. Kleck, M. R. Hebl, & J. G. Hull (Eds.), *The social psychology of stigma* (pp. 220-242). New York: Guilford Press.
- Sheets, R. L., & Mohr, J. J. (2009). Perceived social support from friends and family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bisexual young adult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6, 152-163.
- Sung, M. R., Szymanski, D. M., Henrichs-Beck, C. (2015). Challenges, coping, and benefits of being an Asian American lesbian or bisexual woman. *Psychology of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Diversity*, 2, 52-64.
- Swann, S. K., & Spivey, C. A.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lesbian identity during adolescence.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21, 629-646.
- Tajfel, H. (1981). Social stereotypes and social groups. In J. C. Turner & H. Giles (Eds.), *Intergroup behaviour* (pp. 144-167). Oxford, UK: Blackwell.
- Troiden, R. (1988). *Gay and lesbian identity*. New York: General Hall.
- Ueno, K. (2005). Sexual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adolescence: Examining interpersonal stressors and social support process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8, 258-277.
- Wagaman, M. A. (2016). Promoting Empowerment Among LGBTQ Youth: A Social Justice Youth Development Approach. *Child &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33(5), 395-405.
- Waldo, C. R. (1999). Working in a majority context: A structural model of heterosexism as minority stress in the workpla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218-232.
- Weinreich, P. (1986). The operationalisation of identity theory in racial and ethnic relations, in Rex J. and Mason D. (eds). *Theories of Race and Ethnic Rela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illiamson, I. (2000). Internalized homophobia and health issues affecting lesbians and gay men. *Health Education Research*, 15, 97-107.
- Wong, C. A., Eccles, J. S., & Sameroff, A. (2003). The influence of ethnic discrimination and

- ethnic identification on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school and socioemotional adjustment. *Journal of personality*, 71(6), 1197-1232.
- Worthington, R. L., Savoy, H. B., Dillon, F. R., Vernaglia, E. R. (2002). Heterosexual Identity Development: A Multidimensional Model of Individual and Social Identit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30, 496-531.
- Zimmerman, M. A., Ramirez-Valles, J., & Maton, K. I. (1999). Resilience among urban African American male adolescents: A study of the protective effects of sociopolitical control on their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7(6), 733-751.
- Zoeterman, S. E., & Wright, A. J. (2014). The role of openness to experience and sexual identity formation in LGB individual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Journal of Homosexuality*, 61(2), 334-353.

논문 투고일 : 2022. 03. 07
1 차 심사일 : 2022. 03. 25
2차 심사일 : 2022. 05. 04
게재 확정일 : 2022. 05. 13

Factors influencing the Sexual Identity Formation of Sexual Minorities (LGB) in Korea: A Qualitative Meta-Summary

Sohwi Pyo¹⁾ Seul Ah Lee¹⁾ Aekyung Jang¹⁾ Joonwoo Lee²⁾ Eunbi Lee¹⁾ Eunjoo Yang¹⁾

¹⁾Korea University

²⁾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is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se the meta-summary method to systematically integrate the findings of the heterogeneous qualitative research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xual identity formation process of lesbian, gay, and bisexual groups in Korea. The integrative investigation of the universal or unique factors affecting the identity formation of sexual minority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ir internal experiences and support their psychological adaptation. Using a qualitative meta-summary, this study systematically identified and abbreviated the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that promote or impede the sexual identity acceptance and integration of LGB individuals. First, a total of 9 studies which were published in Korea up to 2021 were identified through the research database. The included studies were critically evaluated by using the Critical Appraisal Screening Programme tool. A total of 179 statements were extracted from the findings of each study and 34 abstracted statements were generated. The 34 abstracted statements wer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psychological factors that promote or impede sexual identity formation and social factors that promote or impede it. These four main categories and corresponding factors in each category were explained.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also discussed.

Key words : Sexual minority, LGB, Sexual identity, Sexual identity formation, Qualitative meta-summary

부 록

부록 1. 분석대상 연구물 리스트

- 강병철, 하경희 (2012). 청소년 성소수자의 긍정적 정체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19(2), 99-128.
- 김은하, 정보현, 김하영 (2020). 레즈비언 대학 (원) 생의 긍정적 정체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상담학연구*, 21(2), 241-267.
- 김하영 (2018). 여성 성소수자의 차별과 배제에 관한 연구 - 레즈비언 페미니즘의 관점을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28(2), 183-214.
- 김현지, 장미영, 김정호, 송지현, 김 란, 홍현주, 신성희 (2019).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의 삶. *동서간호학연구지*, 25(1), 69-80.
- 김형지, 신정훈, 연구진, 김향숙 (2015). 동성애적 지향성을 지닌 대학생 남성의 사회불안 경험과 사회적 지지 특성에 대한 함의적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4), 811-841.
- 박지수, 남상인 (2020). 남성동성애자가 경험하는 성적 정체감 형성과정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청소년학연구*, 27(4), 141-167.
- 정성조, 이나영 (2018). 보이지 않는 군인들: 한국 군대 내 동성애혐오와 성소수자 정체성.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 Vol*, 26(3), 83.
- 정혜숙 (2021). 한국 성소수자 청년의 정체체성형성 경험: Eliason and Schope (2007) 의 분석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5(3), 31-60.
- 주재홍 (2017).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 질적 사례 연구. *교육문화연구*, 23(1), 175-215.